떨어진 배추 가격 희비…소비자 '숨통'·출하 농가 '한숨'

전달比 광주 40.8%·전남 41.9% 급락

최대산지 해남 재배면적 14% 증가

출하철 공급 과잉 우려…대책 시급

지역 배추 가격이 김장철을 앞두고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자와 생산 농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소매가격이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김장 비용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산지에서는 도매가격 급락과 출하 지연으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광주 지역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3천78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천386원과 비교하면 40.8% 하락한 것으로, 평년 가격인 3천892원보다도 낮다.

전남의 하락 폭은 더 컸다.

같은 날 전남 배추 소매가격은 3천445원으로, 전달 5천934원보다 41.9% 떨어졌다. 평년 가격 4천219원과 비교해도 18.3% 낮은 수준이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산지 상황은 정반대다.

도매가격 하락세가 농가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배추 상품 10㎏ 도매가격은 4천338원까지 내려갔다. 한 달 전인 9월과 비교해 60-70% 급락했으며, 평년 가격보다도 5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생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농가에서는 배추를 제때 출하하지 못하거나 밭에서 폐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내 겨울배추 재배면적의 78%를 차지하는 해남은 이번 가격 하락의 충격이 집중된 지역이다. 올해 전국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3천897㏊로, 이 가운데 해남이 3천63㏊에 달한다. 특히 해남의 겨울배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4% 늘어난 데다 가을·겨울배추 전국 생산량도 19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하철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해남군농민회와 전국배추생산자협회 해남군지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선제적인 수급 조절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1만t 추가 비축 계획만으로는 190만t에 달하는 생산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들은 비축 물량이 추후 시장에 풀릴 경우 가격 하락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쌀 수급조절용 벼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1천500㏊ 규모의 배추를 밭에 있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추 유통 과정에서 중간 유통인의 영향력이 큰 만큼 aT와 농협이 주도하는 공공형 유통 플랫폼을 시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지 폐기 지원 단가 역시 인건비와 영농비 상승분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 관계자는 "해남은 전국 배추 생산량의 35%를 책임지는 주요 산지인데,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배추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태호 기자



"힘펠 휴젠트로 한파 대비"

광주신세계 힘펠은 한파를 대비하는 고객들에게 환기와 온풍, 헤어 드라이기 기능 등을 갖춘 휴젠트 팔레트 네오를 추천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58주년' 광주은행, 최대 3.85% 더드림 예금 특판

고객 감사 특별 우대금리 제공

총 5천억원 한도…최대 20억

광주은행은 창립 58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58년 동행 더드림 예금 특판 이벤트'를 실시한다.

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지난 9월 진행한 '더드림+ 예금 금리 이벤트'에 이어 마련된 특별 우대금리 행사로,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총 5천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판매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종료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과 법인 고객으로, 계좌별 1천만원 이상부터 고객당 최대 2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예금 신규일을 포함해 최근 1개월 이내 광주은행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기간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 유형과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특히 9개월 가입 기준 개인고객은 기본금리 연 1.90%에 이벤트 우대금리 1.95%p를 더해 최고 연 3.85%, 법인고객은 기본금리 연 1.90%에 이벤트 우대금리 1.85%p를 더해 최고 연 3.7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가입 기간별 최고금리는 개인고객의 경우 3개월 연 3.40%, 6개월 연 3.75%, 12개월 연 3.80%이며, 법인고객은 3개월 연 3.30%, 6개월 연 3.65%, 12개월 연 3.70%가 적용된다.

상품 가입은 개인고객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광주와뱅크(APP),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법인고객은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창립 58주년을 맞아 오랜 시간 광주은행과 함께해 주신 고객 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추가로 마련했다"며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지역 웹툰 '레벨업 닥터 최기석', AI 팝업스토어

15일까지 현대아울렛 송도점서

광주지역 콘텐츠 기업이 제작한 웹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수도권 대형 유통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역 콘텐츠 기업 ㈜스튜디오질풍의 웹툰 '레벨업 닥터 최기석'을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인천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문을 연 팝업스토어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팝업스토어는 '2026 광주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AI 기술 융합 콘텐츠 IP 제작지원 과제를 통해 마련됐다. 온라인에서 연재된 웹툰 지식재산권(IP)에 AI 기술을 접목해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를 대형 유통매장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사업화 모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장에는 웹툰의 세계관과 주요 등장인물을 활용한 전시·체험 공간이 조성됐다. 방문객들은 웹툰 속 캐릭터를 만나고, AI 기반 맞춤형 뷰티·음악·사주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GICON과 현대백화점의 두 번째 협업 사례로 양 기관은 지역 콘텐츠를 수도권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지역 기업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광주상의, '워라밸+4.5' 우수사례 성과 공유

에코월드팜·인터테크 등 사례 소개

광주상공회의소는 5일 어나더키친 전대병원점에서 지역 기업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워라밸+4.5 경영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도입수준과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상의는 올해 '워라밸+4.5 프로젝트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희망기업 50여개사에 노무 전문가 1대1 자문 상담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38개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

포럼에서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기업 4개사가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에코월드팜은 '급여나 복지로 채워줄 수 없다면 시간을 돌려주자'는 고민에서 출발해 업무 표준화와 AI 활용을 통한 업무혁신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유지를 함께 이뤄낸 과정을 소개했다.

㈜인터테크는 채용과 인력 유지가 어려운 지방 제조업의 고민을 노사 협의로 풀어낸 사례를 공유했다. 올해 7월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유급휴무를 시행해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였으며, 지원이 끝난 뒤에도 임금 삭감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적용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광주상의 전무이사는 "이번 포럼이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해법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기업,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